

大學院 地理學 野外 세미나를 위한 課程開發 研究*

李 琦 錫·黃 載 璣·李 炳 高
(地理教育科)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60년 이후 급격히 발달한 현대지리학은 전통적인 지리학과는 달리 각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정적인 개념을 토대로하여 면밀히 관찰 기록한 자료를 계량적인 방법을 적용 분석하므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인 결론내지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수집과 기록이 대부분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종 연구기관과 정부 기관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 조사된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타월하여 연구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연구에서 일차적 자료를 떠나 이차적 자료를 토대로하여 지역분석을 하고 이론을 전개할 경우에 파생될지도 모르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상과 사건(event)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지리학자들에게 필요한 지역현상에 대한 각종 자료는 가능한한 일차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합된 것을 이용할때 목표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자료의 수집작업은 대부분 연구지역의 범위에 따라 좌우되며 연구목적에 의해 누차에 걸친 야외조사를 통해서 성취된다. 특히 대학원 과정은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할 뿐더러 실제 사례지역의 분석을 토대로하여 일관된 연구조사가 뒷바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야외실습을 위한 기술과 능력 배양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미나 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지리학의 연구대상인 지역과 장소에 대하여 현장연구시 필요한 조사관찰방법, 분석 정리, 종합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야외실습 세미나 과정을 개발하여, 실습할 수 있는 대학원 지침서를 만들고자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2)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야외지역을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학위논문을 전개하기 위한 사례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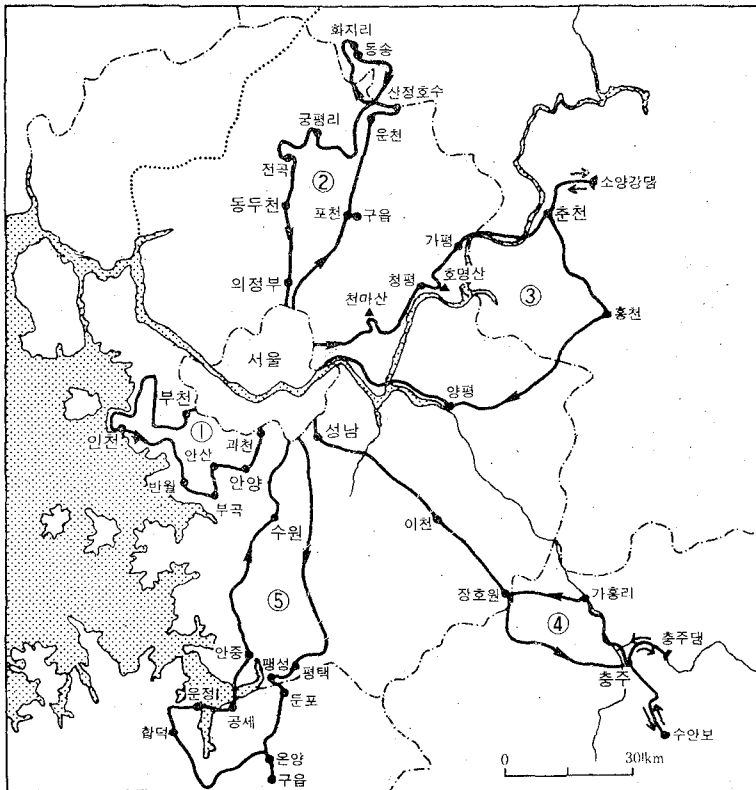
* 文教部 1983年度 大學院 重點育成 學術助成 研究費에 依함.

이차적인 목적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가 야외실습 세미나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지침서와 대학원생의 연구지역 설정을 위한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내용도 이에 준하여 야외세미나 과정의 중요성과 실습 지침이 될 수 있는 사례지역의 선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에 한정 할 수 있다. 야외조사의 지리적 중요성은 그간에 구미 각국에서 경험한 사실과 그간에 실적을 기반으로하여 문헌적인 연구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의 선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1일 이내에 답사와 조사가 가능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다. 서울 주변의 1일 답사 코스로 국한한 것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주말을 이용 할 수 있으므로써 모든 대학원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야외조사 코스의 개발방법은 5개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답사를 거쳐서 수정·보완되었다. 최소한 5개지역에 대하여 2차 이상의 실제 답사와 코스평가를 시도하여 본 연구에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각 코스에서 교통수단은 모두 전세버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도 1> 실습 지역과 코스



본 연구에서 채택된 5개 야외 실습지역은 다음과 같다(지도 1 참조).

- (1) 경인회랑(코리도)지역
- (2) 포천—철원—전곡지역
- (3) 북한강 유역
- (4) 남한강 유역과 중부지방
- (5) 아산만지역

상기 5개지역은 서울에서 1일내에 왕복할수 있는 지역인 동시에 각 지역간에는 기능적으로 분화정도가 상이할 뿐더러 수도권내에서 그 지리적 중요성도 다양한 것이 특색이다. 경인회랑 지역은 일찍이 개발되었을 뿐만아니라 공업지역으로써 그리고 서울의 교외 확산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지리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포천—철원—전곡 지역은 수도권의 제한 개발지역으로서 전략지역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지역에 발달한 용암분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형발달·농업형태·취락·관광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강 유역은 서울에서 춘천지방에 이르기까지 수자원·전력자원 개발과 낙농업발달이 탁월한 지역으로 그 지리적 특색이 나타난다. 남한강 유역과 중부지방은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농업경관을 띠고 있으며 최근에 수자원 개발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끝으로 아산만 지역은 서해안에 면해 간척지 개발과 내륙 농업수자원 개발이 집중된 지역으로 미래 지역개발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지역의 하나이다. 이상과 같은 5개 지역들은 그 중요성과 지역적 기능이 다소 중복되기도 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는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정도에 따른 공간조직이 구조적으로 특색을 띠고 있는 관계로 전체로서 각 연구지역을 이해하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복되는 실습만이 지리적 해안을 기르게 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2. 지리학연구와 야외조사의 중요성

지리학연구에서 야외조사의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유럽과 미국에서 각기 그 중요성의 인식이 지리학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일어났었다. Board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1965, 187-193) 영국에서는 야외학습(field teaching)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에 비해 미국에서 야외조사(field work)라는 측면이 연구에 더욱 부각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면에서보면 Corey는 20세기에 들어와 지리학의 연구중점이 전환되는 것과 함께 야외조사의 중요성도 그 정도를 달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1968, p.3). 특히 연구과제의 접근방법이 이론적인 것인지 경험적인 것인지에 따라 야외조사의 빈도와 그 관련성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1960년 이후 지리학에서 이론적 접근이 지배적인 경향을 띠면서부터는 전통적으로 연구자료의 수집을 연구지역에 실제 답사를 통해서 취합하던

것이 전지역 보다는 표본조사에 의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간행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이론적 접근에 기반을 둔 현대지리학이 계량적인 분석 방법을 도입하고, 아울러 대량의 자료를 동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짧은시간에 처리하므로써 잠정적인 이론을 주어진 가정위에서 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련 연구지역의 기존 출판자료나 센서스자료등의 유무에 따라서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 가운데 도시지리학에서 내부의 구조적 특성연구나 지역간의 경제 성장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전개와 검증 그리고 복잡한 도시구조와 지역구조를 이해하는데 괄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Berry and Horton, 1970).

반면에 지리학에서 이론적이며 계량적인 접근은 자연히 야외조사에 의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연구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도작성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주변 지역내지 지지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되었으며 그 전통적인 지리학에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대학원 과정에서도 흡사한 경향을 되풀이하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마저 한번도 야외조사를 거치지 않고 논문을 끝내고 학위를 받게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문지리학에서 지지연구 혹은 좁은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가 지진한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의가 강경하게 대두되고 있다(Johnston, 1984).

본질적으로 야외조사의 중요성은 연구지역을 실제조사에 착수하므로써 우선 지역환경에 익숙해질 뿐아니라 지역의 각종 현상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실제로 경험하고 인지하게 되는 첫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지리학이 장소 내지 지역(area)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이상 연구지역의 최초 답사와 조사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중세기 암흑시대와 신대륙 탐험시대에는 이러한 입장에서 처녀지에 대한 여행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여행기와 보고서 같은 형태로 기술하므로써도 지리학의 정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때도 있다. 이것은 지리학이 원초적으로 지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즉 분포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요망되던 때에 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야외조사는 그 연구가 귀납적이든 연역적이든 모든 접근을 위해서 기본적인 원자료를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야외연구지역은 지리학자들에게 실험장이며 자료의 보고인 것이다. 관찰과 기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측량을 통해 지도화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야외현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념구성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보다 넓은 지역에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될 때를 고려한다면, 관찰을 통한 자료의 기록과 수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현장의 축적을 고려하여 표본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표본조사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셋째는 지리연구의 필수적인 연구방법의 하나가 연구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지도를 도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학부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시간에 실제 지도를 갖고 실습을

하고 도화작업을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지도의 축척과 현장을 정확히 정치하는 독도법에 있어 미숙하기 말할나위없다. 야외조사는 바로 이 지도에 관련된 모든 것, 즉 독도법에서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지도제작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능력을 직접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빗썰로 야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자료정리 보관, 분석을 위한 자료의 분류, 기록하는 방법 등 실제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계량적 사고능력을 직접적으로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리교육에서 이론적 배경을 육성시키는데 단계적인 과정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로써 후자는 “야외조사실습은 원자료를 경험하게 되는 계획된 기회”라고 언급하고 있다(Coleman, 1970). 끝으로 야외조사는 응용지리학의 한 부분으로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 계획된 자료수집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에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때 feedback 과정을 여러차례 가져야만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응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야외조사 기술과 방법을 고안하고 응용하게 되므로 문제해결에 도달하게 된다.

항공사진의 이용이나 인공위성 사진의 분석의 필요성은 모두가 이러한 야외조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응용지리학의 영역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야외조사 세미나과정 개발은 상기와 같은 야외조사의 중요성을 토대로하여 대학원 교과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과 조사 그리고 응용능력을 동시에 함양시키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다.

3. 대학원 과정의 야외세미나 모형개발

현재 대학원 운영에서 대부분의 학습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때, 일방적인 야외조사의 중요성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일정한 시간을 할당하는데 있어 융통성이 적으며, 특히 휴가기간의 시간이용은 정규학사시간외인 까닭에 그 적용이 또한 어려워 지게된다. 시간적인 제한이 가장 큰 문제인 반면에 야외조사를 통한 능력함양이라는 전체는 급선무인 까닭에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야외세미나 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절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토의된 영국식 야외학습과 미국식 야외조사실습을 잘 조화시키는 야외세미나라는 것이다. 이것은 야외조사에 선행되는 부분과 야외조사 그리고 결과의 정리·보고등의 여러 단계 모두를 학생과 교수가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행되는 부분과 결과부분을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가 개발하고 실습학생은 주어진 야외실습 지역에 도달하여 짧은 시간내에 개발된 모형의 전개된 세부항목을 실제로 관찰하고 조사, 기록, 지도화 한 후에 결과보고는 학생과 교수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절충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도 상당한 부분은 세미나식으로 설명이 가해지거나 필요한 의

문을 제기해줌으로써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참여의식을 높혀 줄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연장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실습세미나 형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특색이 된다.

또한 흡사한 지역내지 관련 연구에 대한 시사를 줌으로써 각자의 학위논문 주제를 찾고 발전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한다. 이러한 세미나식 야외조사는 짧은 시간내에 훈련을 시킬수 있으며 반복될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제거하여 관찰하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 내지 가정적인 이론을 정립시켜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사전에 수립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불충분한 자료의 소재를 파악해 줄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 모형은 학생과 교수가 야외조사 세미나에 각자 분담해야 할 태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야외조사세미나의 필요한 단계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세미나 과정에서 선택된 사례지역이 과연 현행 대학원 과정의 교과 과정과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1 참조).

<표 1>은 야외세미나 과정과 대학원 전공과정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5개 사례지역과의 관계에서 볼 때 대부분의 과목이 각지역의 특색과 관련하여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에 따라 각 전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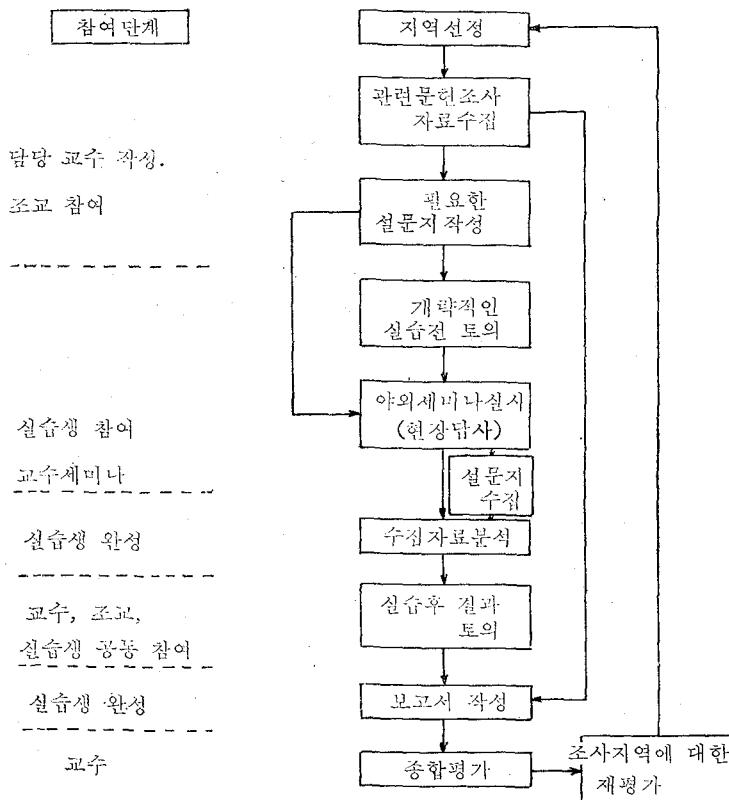


그림 1. 야외 세미나 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과 참여 단계

<표 1> 야외 학습지역과 대학원 전공분야와의 관련

사례지역의 중점사항	사례지역	대학원 전공관련과목*
1) 도시화지역, 공업지역, 낙후지역, 도시개발	경인지역	도시구조론, 도시체계론, 입지론 특강, 한국지리연구, 경제지리연습, 지도학 및 원격탐사특강, 사회지리학특강
2) 지형발달, 촌락과 근교농업, 전락지역	포천-철원지역	지형학특강, 촌락지리학, 경제지리연습, 지도학, 한국지리연구
3) 수자원 및 관광자원, 미기후 변화	북한강 지역	경제지리, 경제지리연습, 한국지리연구, 입지론 특강, 소기후학특강, 지형학특강, 지도학
4) 농업지역, 전통공업, 수자원개발, 특수 취락	남한강 유역	경제지리, 경제지리연습, 한국지리연구, 입지론 특강, 소기후학특강, 지도학
5) 취락발달, 수자원개발, 해안지형, 공업지역개발	아산만 지역	촌락지리학특강, 경제지리연습, 입지론특강, 한국지리특강, 지형발달사특강, 지도학

* 1985년 1학기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원 교육과정에 따름.

상기 모형과 사례지역의 개발은 시간조건과 연구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형할 수 있으며,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 장점이다. 즉 필요에 따라 본 연구의 기본틀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례지역을 첨가 발전시킬 수 있다.

4. 야외세미나 사례 지역 연구

1) 경인 회랑(코리도) 지역

(1) 지역 개관과 특색

이 지역은 경인공업지역으로 알려진 서울-인천축과 서울-수원 축간에 발달한 도시지역과 교외지역이 복합된 공간적 특성을 지닌 곳이다. 일찍이 서울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확대되면서 위성도시의 선별적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이들 도시들의 성장은 도시산업의 기능적 특화내지 교외지역의 주택지 확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시 성장이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위성도시간에 도시화지역이 공간적으로 연계현상을 이루어 일명 연합도시형태(conurbation)의 공간조직을 탄생케 하였다. 이같은 형태의 토지이용은 복잡한 여러 과정을 동시에 동반하여 전통적인 농촌지역에 근교농업이 확산되고, 지방중심의 소도시내지 촌락이 서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하게 되어 기존 토지이용의 재편성과 상업내지 서서비스지역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위성도시에서 내부의 도시구조는 사회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과 쇠퇴라는 두개의 서로 다른 변화를 가져왔으며 주변 인접지역에서도 비슷한 대비현상이 나타나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핵심지역내에 소외된 urban shadow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수도권에

서 공업화, 도시화 그리고 농촌의 근대화과정을 포함하여, 부수적으로 관찰되는 소의지역의 구조적 특색을 야외관찰을 통하여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례지역으로 적절하다.

(2) 주요 관찰사항과 지역

ㄱ) 서울의 주택 교의화와 공업시설의 배치, 도시회랑의 구조적 특색 : 서울—오류—부천에 이르는 지역

ㄴ) 위성도시의 특색(주택, 교통, 출퇴근현황) : 부천시와 전철역 및 시내버스 공동 정류장

ㄷ) 특수 종교취락의 발달과 쇠퇴 현상 : 부천시 범박동일대

ㄹ) 경인고속도로와 공업지역의 입지특색 및 주택지역의 국지화 현상 : 인천시 효성동 일대와 계산동

* 계산동 구읍취락의 특색 파악

ㅁ) 해안공업지역의 발달과 인천 중심가의 구조적 변화 : 인천시 송림동, 만석동, 송월동, 중앙동

* 부두지역의 이용현황 관찰

* CBD와 중국인 주택가의 성쇠과정 관찰

ㅂ) 도시의 확산과 구읍촌락의 변모 : 인천시 문학동일대

ㅅ) Urban shadow 지역과 개발 전략과의 관계 :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미산리일대

ㅇ) 공업도시 건설과 공해산업 : 반월신도시

ㅈ) 행정도시의 입지 및 기능 배치상의 특색 : 과천

(3) 야외 답사 코스

서울—오류동—부천시—범박동—인천시 계산동—효성동—만석동—중앙동—부두—문학동—시흥군 소래읍 신천리—수암리—반월—안산—안양—과천—서울

(4) 답사시 활동 계획표

세부 조사 항목	조사지역	세부 활동 사항*							비고
		인터뷰	사진기록	관련기관 방문	관련기관 취재	설문지 배포	지도작업	현지자료 수집	
ㄱ) 교의화·도시회랑·공업시설배치	서울—오류—부천		×				×		
ㄴ) 위성도시특색	부천시역전부근	×	×	×			×	×	
ㄷ) 특수종교취락	부천시범박동	×	×	×	×	×	×		설문지 배포 후 추후수집
ㄹ) 공업지역입지·주택지역국지화	인천시효성동계산동	×	×	×			×	×	
ㅁ) 해안공업지역·구읍취락	인천시송림동·만석동·송월동·중앙동	×	×	×			×	×	

h) 도시확산·구읍 취락	인천시 분학동일대	×	×	×		×	×	
入) Urban shadow 개발전략	시흥군 소택읍 신천리 미산리		×			×		
o) 공업도시건설·공해 산업	반월	×	×	×		×	×	
ㅈ) 행정도시입지 기능 배치	과천		×	×		×		

* 상기 세부활동중 설문지 배포는 답사 당시 가장 중점을 두는 항목에 한하여 설문지를 사전에 제작하여 관련지역의 주민이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포천—철원—전곡지역

(1) 지역 개관과 특색

이 지역은 추가령 구조곡의 일부로서 철원—전곡용암대지의 중심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휴전선이 가까워 그 영향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추가령곡이 형성된 후인 신생대 제 4기에 수차에 걸친 용암의 열하분출로 현재의 철원—전곡용암 대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위에 얇게 층적층이 덮고 있다. 여러군데 기반암으로 된 구릉이 용암대지 위로 나타난것이 보이며, 한탄강이 용암대지와 기반암의 경계, 혹은 용암대지의 중앙을 뚫고 흐르고 있어 여러곳에 고석정과 같은 절벽이 분포하는데, 이들은 관광자원도 되지만 지형발달의 관찰에 좋은 장소가 된다.

예로부터 추가령곡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인식되어 왔기에 방어의 요충지에 중심취락을 건설하였다. 이것이 근대교통로가 개설되면서 교통로에서 이탈하게 되어 구읍취락으로 쇠퇴하게 된 곳도 있다. 6.25때는 추가령곡의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었고, 그래서 휴전 무렵에는 군사적 요충지에 대한 쟁탈전이 치열했었고, 그 와중에 철원읍은 폐허화하였다. 휴전이 되면서 휴전선 근처엔 전방취락이 형성되었고, 폐허가 된 철원대신 신철원이 건설되어 철원 용암대지 지역의 중심 취락으로 성장하였다. 철원·전곡용암대지는 토양이 비옥하여 한탄강의 물을 이용,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곡은 용암대지상에 입지한 취락이며, 그 부근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철원—전곡지역은 지대가 저림하고,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 양계·양돈·낙농업이 성하다. 이렇듯 철원—전곡지역은 용암대지와 한탄강 주변의 지형발달, 취락의 성쇠요인, 문화경관, 지역개발 등 전체로서의 자연 인문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능력을 야외관찰을 통하여 기를 수 있는 사례지역으로 적절하다.

(2) 주요관찰 사항과 지역

ㄱ) 가촌 취락의 분포특색 : 의정부—포천에 이르는 지역

ㄴ) 구읍 취락의 변모 : 포천군 근내면 구읍리

㉔) 전방 취락과 전방농업 :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 화지리의 상가 특색 파악

㉕) 용암대지와 한탄강 주변의 지형발달 :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와 포천군 청산면 궁평리

* 궁평리의 관찰

* 연천계, 조선계암석, 백의리층의 관찰

㉖) 용암대지의 토지이용과 도로망의 발달 : 화지리—운천리에 이르는 지역

㉗) 관광자원의 이용실태 및 취락발달, 추가령곡의 구조적 특색 : 동송읍 장흥리 한탄강 계곡(고석정)과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산정호수)

* 산정호수의 관광취락 관찰

* 산정호수 산록의 관찰

㉘) 소규모댐건설에 의한 지역개발 : 연천군 전곡면 신담리일대

㉙) 용암대지 말단부의 지형특색 및 선사시대의 유적지 관찰 :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 용암의 분출회수를 말단부의 지형으로 관찰

㉚) 기지촌의 변모 :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3) 야외답사 코스

서울—의정부—포천(구읍)—운천—화지리—장흥리—지도리—산정호수—영평—궁평리—전곡—서울

(4) 답사시 활동 계획표

세부 조사 항목	조사지역	세 부 활 동 사 항						
		인터뷰	사진기록	설문지배	지도작업	현지자료수	자료집	비 고
㉑) 가촌 취락의 분포특색	의정부—포천		×		×			
㉒) 구읍취락의 변모	포천군 구읍리	×	×	×	×	×		
㉓) 전방취락과 전방농업	철원읍 화지리	×	×	×	×	×		
㉔) 용암대지와 한탄강주변의 지형발달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포천군 청산면 궁평리		×		×	×		
㉕) 용암대지의 토지이용과 도로망의 발달	철원읍 화지리, 포천군 운천리		×		×			
㉖) 관광자원의 이용실태 및 취락발달, 추가령곡의 구조적 특색	동송읍 장흥리, 포천군 영북면 산정호수	×	×	×	×	×		
㉗) 소규모댐 건설에 의한 지역개발	전곡면 신담리 일대	×	×		×	×		
㉘) 용암대지 말단부의 지형특색 및 선사시대유적지 관찰	전곡면 전곡리		×		×	×		
㉙) 기지촌의 변모	포천군 운천리	×	×		×	×		

3) 북한강 유역

(1) 지역개관과 특색

이 지역은 서울—춘천축과 서울—원주축간에 발달한 교외지역으로 북한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과 보존, 그리고 레저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일찍이 북한강에는 화천, 춘천, 청평댐이 건설되었으며 60년대에는 팔당, 의암, 소양강댐을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산업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으로 급증하는 용수 및 전력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풍부한 전력개발을 토대로 하여 최근에는 야간에 남아도는 전력을 이용하여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에 적절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를 청평에 건설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상수원인 북한강 유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해성 공장의 입지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팔당호를 중심으로 강변에 위락기능을 갖게 하여 강변을 따라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대와 여가활동이 격증함에 따라 이 지역의 관광 위락 기능은 더욱 확충될 것이다. 그리고 경춘, 경원가도의 연변을 따라서 폭 4km이내에 젓소를 사육하는 낙농업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도농리, 금곡리, 마석일대에 낙농업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젓소사육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청평지역은 경춘가도변의 낙농업 입지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편리한 교통조건을 이용하여 과수·채소 재배등의 근교 농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 그리고 편리한 교통로를 따라 발달한 낙농업과 위락시설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지역으로 적절하다.

(2) 주요 관찰사항과 지역

ㄱ) 경춘가도의 토지이용변화와 그 특색 : 서울—청평—상천지역

* 근교농업의 발달 관찰

ㄴ) 경춘·경원선 주변의 레저지역 발달 : 금곡, 마석, 덕소, 대성리, 묵현리(천마산 스키장)

* 관광벨트 형성관찰

ㄷ) 하천수로의 발달과 유원지 취락의 특색 : 청평유원지, 팔당유원지, 소양강댐 유원지

ㄹ) 낙농업의 입지 특색 : 도농리, 금곡리, 마석리, 청평일대

ㅁ) 북한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실태 : 청평댐, 양수발전소,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소양강댐

ㅂ) 양수발전소의 입지와 역할 : 청평 양수발전소(호명산)

ㅅ) 춘천시의 구조적 특색과 주변취락 : 춘천시 중앙동 및 우두동

ㅇ) 북한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과 미기후변화 : 팔당저수지, 춘천호반.

(3) 야외답사 코스

서울—마치고개—목현리(천마산스키장)—세터—청평발전소—상천(양수발전소)—의암발전소—춘천시—우두동—춘천발전소—소양발전소—춘천시—홍천—양평—팔당—서울

(4) 답사시 활동 계획표

세부 조사 항목	조사지역	세 부 활 동 사 항							비 고
		인터뷰	사진기록	관련기관방문	관문취회	설문지배	지도작업	현지자료수집	
가) 경춘 가도의 토지 이용 변화와 그 특색	서울—청평—상천		×				×		
나) 경춘, 경원선 주변의 레저지역 발달	금곡, 마석, 덕소, 대성리, 목현리	×	×				×	×	
다) 유원지 취락의 특색	청평, 팔당, 소양대 유원지	×	×				×	×	설문지 후 수배추수
르) 낙농업의 입지 특색	도농리, 금곡리, 마석리, 청평일대	×	×			×	×	×	
미) 북한강유역의 수자원 개발 실태	청평댐, 양수발전소, 의암, 춘천	×	×	×			×	×	
히) 양수발전소의 입지와 역할	청평 양수발전소	×	×	×			×	×	
사) 춘천시의 구조적 특색과 주변취락	춘천시 중우동, 양동동	×	×				×	×	
오) 북한강유역의 수자원 개발과 미기후 변화	팔당저수지, 춘천호반	×	×				×	×	

4) 남한강 유역과 증부지방

(1) 지역 개관과 특색

이 지역은 서울에서 성남시와 이천·충주에 이르는 축상에 위치한 지역과 남한강 유역에 연하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증부 내륙의 농업경관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특용작물의 재배와 이에 따른 취락의 특수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한 산업도로에 따라 발달하기 시작한 경공업지대가 서울에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는 경관을 관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재래공업이 성업하는 지역이 함께 나타난다. 남한강 유역에서 최대 규모의 수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자원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대한 지리적 평가를 시도할 수 있으며 관련 문제를 새로이 제기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충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기후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수안보와 문경 새재를 중심으로한 은천과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 레져다운의 발달이 현저하여 취락발달과 자원개발의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다. 남한강 수운과 관련하여 지금은 이미 쇠퇴한 가항이지만 역사 지리적 관점에서 가흥창의 입지에 대한 검토가 현

장담사를 통하여 가능하다. 아울러 하천범람에 의한 지형 발달과 근교 농업의 실태를 살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남한강 유역이다.

이로써 이 사례지역은 수도권에서 점진적으로 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그 외곽에 나타나는 경관을 연계성 있게 관찰할 수 있으며, 중부권의 수자원 개발, 전통 공업의 전수, 특용 작물의 재배와 관련경관, 특수취락의 발달과 쇠퇴 등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2) 주요 관찰 사항과 지역

ㄱ) 전통적인 도자기 공업의 입지 조건과 발달 : 경기도 이천일대

ㄴ) 산업도로의 건설과 농업경관의 변모 : 경기도 성남—이천

*이천 영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의 경공업 입지현상 관찰

ㄷ) 충주댐의 건설과 지역 개발 효과 : 충주댐과 보조댐

*미기후 변화에 대한 예상

*침수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변화와 적응에 대한 문제

ㄹ) 특수취락의 발달(온천취락) : 수안보

*내부토지 이용의 특색 파악

ㅁ) 남한강 하천유역의 지형발달과 수운의 성쇠 : 충주 탄금대의 범람원 답사 및 가흥창지 답사

ㅂ) 중소 도시의 기능과 구읍 취락의 실태 : 장호원과 음죽

ㅅ) 특용작물 재배와 가옥 구조의 특색 : 충북 증원, 음성, 괴산군일대

*담배 재배와 건조장 구조

*토지 이용의 특색

(3) 야외 답사 코스

서울—성남—이천—장호원—충주댐—수안보—충주 탄금대—중앙탑—가흥창—음죽(구읍)—서울

(4) 답사시 활동 계획표

세부 조사 항목	조사지역	세 부 활 동 사 항							비 고
		인터뷰	사진기록	관련기관 방문	관문지배	지도작업	현지자료수집		
ㄱ) 전통 재래 공업의 입지와 분포	이천	×	×	×	×	×	×		
ㄴ) 산업도로의 영향·경공업의 입지·농업 경관 변화	성남·이천	×	×	×		×	×		
ㄷ) 수자원 개발지역·개발 효과·미기후 변화	충주댐 협장 사무소	×	×	×	×	×	×		
ㄹ) 특수취락의 발달·내부토지 이용 관찰	수안보	×	×	×	×	×	×		

口) 하천 유역지형 발달·수운의 성쇠	충주·탄금대·가흥	×	×			×	×	
나) 중소도시의 기능 변화·구읍 취락의 성쇠	장호원 음죽	×	×			×	×	
사) 특용작물 재배경관취락의 특색·부속건물의 특색	중원·음성·괴산일대	×	×			×	×	

5) 아산만 지역

(1) 지역개관과 특색

아산만 지역의 범위는 엄격하게 지리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의 편의상 대략 평택군의 일부, 아산군, 그리고 예산군과 당진군의 일부를 포함하는 안성천과 삼교천의 유역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아산만을 면하는 지역으로 1970년대 국토개발이 전국토에 적용됨에 따라 농업용수개발과 수도권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주요한 공업지역의 후보지로 선정되어 여러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이 시안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아산방조제, 삼교천 방조제가 완성됨에 따라 두 하천 유역은 전천후 농업이 가능해졌으며,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내륙에 저구릉지의 개발이 촉진되고 동시에 연안에 맑은 공기와 우수한 환경은 수도권지역에 또 다른 국민 위락지로 그 기능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계획과 구상에 뒤따르지는 못하였지만 아산만 지역은 국내에서 항구개발과 해안 간척을 통해 공업지와 항구개발로 가장 훌륭한 잠재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관계로 지리학자들에게 지역구조의 미래 전망이라는 측면에 유익한 야외학습 장소인 것이다.

이 밖에 아산만지역은 내륙으로 준평원에 가까운 지형이 발달하였을 뿐아니라 이들의 개발과 토지이용, 토양발달 등은 또한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리고 기지촌, 구읍취락, 온천취락 등이 산재하고 있어 취락연구에 좋은 지역이며 삼교천에 면한 당진군의 합덕지역은 산촌 발달이 탁월하여 촌락형태연구에 훌륭한 실습장이다. 특히 아산만은 일찌기 외래종교인 천주교의 관문적인 역할을 하였던 관계로 천주교의 신자와 주요 천주교의 건물이 산재하고 있어 문화 경관을 관찰 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2) 주요 관찰사항과 지역

가) 준평원 지형발달과 토양분포 : 평택부근

*구릉지의 토지이용(과수재배, 낙농, 삼림, 특수용지등)

나) 아산만 연안의 해안지형 발달 : 아산만 연안

*간척지의 발달

*해안 사취

*염전의 발달

다) 수자원 개발과 농경지 확대 : 아산호와 삼교호

*농수로 시스템의 발달과 연계

*레저지역의 개발

*미래 공업지역 개발 전망

ㄷ) 특수취락의 발달과 쇠퇴 : 온양 · 팽덕 · 둔포 · 신창 · 공세리

*기지촌, 구읍, 과수취락, 온천

*조창취락과 수운

ㄹ) 산촌의 발달과 입지 : 당진군 함덕부근

ㄴ) 천주교의 전래와 문화경관 : 아산단 일대의 해안지역

(3) 답사코스

서울—평택—평성—둔포—온양—온양구읍—신창—함덕—매산—운정—삼교제방—문방—공세리—아산제방—안중—평택—서울

(4) 답사시 활동 계획표

세부 항목	조사지역	세 부 활 동 사 항								
		인터뷰	사진기록	관련기 방문	관 찰	설문지 배	지도작업	현지 수	자료 집	기 타
ㄱ) 준평원지형 · 토양 분포 · 구릉지 토지 이용	평택부근		×				×	×		
ㄴ) 해안지형 발달 · 간척지 발달 · 염 전분포	아산단일대		×				×	×		
ㄷ) 수자원개발 · 농경지 확대 · 국민관광지 개 발 · 미래공업 전망	아산호 삼교호	×	×	×	×	×	×	×		
ㄹ) 특수취락 발달과 쇠퇴	온양 팽덕 공세리	×	×			×	×	×		
ㄴ) 산촌의 발달과 입 지	당진군 함덕	×	×			×	×	×		
ㄴ) 천주교의 전래와 문화경관	아산단일대	×	×	×	×	×	×	×		

5. 결론 및 제언

지리학 연구의 급진적 발전에 대처하여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야외실습을 통한 지리학 기초에 대한 새로운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친 지지중심의 연구나 이론중심의 전통적 지리학의 어느 한 쪽으로 치중된 발전은 지리학 본연의 진로를 상실할 염려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30여년동안 현대지리학 성립과정에서 경험하였다. 본 연구는 야외세미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리학습의 현장을 경험시키고 자료의 수집분석, 관찰능력 등을 가장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려는 목적에서 지침서 작성과 사례지역 답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5개 사례지역의 선정과 이에 따른 답사 결과는 야외세미나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일깨우는데 충분한 응용분야임이 인정되었다. 조사와 경험을 토대로 대학원 과정에 필요한 학위논문들을 위한 관련지역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 전공 과목과의 연계를 갖게 하므로써 현장학습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학습과정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례 지역과 모형이 시간적인 제한과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완전한 야외세미나를 위한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5개 사례 지역에서 지역 범위는 야외세미나의 학습 목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확대 혹은 연장 조절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실습비 보조의 증액이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동시에 효율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관련 시설과 실습 기구의 보완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김봉균, 1964, "연천 및 포항지구 현무암에 대한 고지자기 연구," 「지질학회지」, 제 1권 제 1호, 50-56.
- 김상호, 1964, "추가령 열곡에 대한 고찰," 「사대학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 5권 제 1호, 156-161.
- 김재광, 1969,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낙농지역의 형성," 「춘천교대논문집」, 제 7집, 춘천교육대학, 9-28.
- _____, 1974, "수도권 지역의 낙농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춘천교대논문집」, 제 14집, 춘천교육대학, 147-172.
- _____, 1975, "춘천시의 도시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16집, 춘천교육대학, 75-108.
- _____, 1976, "소양호의 지역구조와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14집, 공주사범대학, 217-230.
- 김조녕, 1978, "기지촌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경기도 파주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과 지리교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제 8집, 75-105.
- 양교석, 1982, "추가령 열곡내 한탄강 하류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암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구과학교육회지」, 제 3권 제 1호, 13-25.
- 원종관, 1983, "한반도에서의 제 4기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 「지질학회지」, 제 19권 제 3

호, 158-168.

오홍석, 1979, "서울 교외선 주변의 유원지 취락: 송추, 일영을 중심으로,"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 9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25-40.

이기석, 1968, "구읍 취락에 관한 연구—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 대한지리학회, 제 3호, 31-44.

이대성, 류은규, 김광호, 1983, "추가령 열곡의 지구조적 해석," 「지질학회지」, 제19권 제 1호, 19-38.

이학원, 1974, "서울을 중심으로한 낙농임지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10호, 대한지리학회, 61-81.

함형복, 이민성, 1984, "전곡지역의 알칼리 화산암류에 관한 연구," 「사대논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9집, 33-49.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968, *Field Training in Geography*, Commission on College Geography Technical Paper No. 1, Washington D.C.

Bell, Evelyn, 1976, "Fieldwork in Geography," in Stewart Dunlop, ed., *Place and People, A Guide to Modern Geography Teaching*,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pp. 36-44.

Berry, B. J.L. and Frank Horton, 1970, *Geographic Perspectives on Urban Systems*, Englewood-Cliffs, N.J., Prentice-Hall.

Board, Christopher, 1965, "Field Work in Geograph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Role of Land-Use Survey," in R.J. Chorley and P. Haggett, eds., *Frontiers in Geographical Teaching*, London: Methuen.

Coleman, Alice, 1970, "Field Work," in W.G.V. Balchin, *Geography: An Outline for the Intending Student*, London: Roulledge & Kegan Paul, pp.55-70.

Corey, Kenneth E., 1966, "Using Local Resources in Developing Geographical Concepts and Understandings," *Social Education*, Vol. 30, pp.617-620.

Corey, Kenneth E., 1968, "The Role of Field Work in Geographic Research and Instruction," in A.A.G., *Field Training in Geography*, pp.3-12.

Davis, Charles M., 1954, "Field Techniques," in R.E. James and C.F. Jones, eds., *American Geography*, Syracuse: S.U.P., pp.496-529.

Johnston, R.J., 1984, "Human Geography as a Generalizing Social Science: Trans-Atlantic Contrasts in Local Government,"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50, No. 3, pp.335-341.

Gunn, A.M., 1962, *Techniques in Field Geography*, Vancouver: Copp Clark.

- Haring, L.L. and John F. Lounsbury, 1983, *Introduction to Scientific Geographic Research*, Third Edition, Dubuque, Iowa: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 Hutchings, G.E., 1942, "Geographical Field Teaching," *Geography*, Vol. 47, pp.1-14.
- Minshull, Roger, 1970, *The Changing Nature of Geography*,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 O'Hern, James H., 1967, "Geographic Field Study Techniques," *Journal of Geography*, Vol. 66, pp.360-363.
- Platt, R.S., 1959, *Field Study in American Geography; The Development of Theory and Method Exemplified by Selections*,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6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Stoddard, Robert H., 1982, *Field Techniques and Research Methods in Geography*, Dubuque, Iowa: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Wheeler, K.S. and Harding, M., 1965, *Geographic Field Work: A Handbook*, London: Blond.
- Wooldrige, S.W., 1955, "The Status of Geography and The Role of Field Work," *Geography*, Vol. 60, pp.73-83.
- Wooldrige, S.W. and W.G. East, 1967, *The Spirit and Purpose of Geography*, London: Capricorn Books.

Development of Field Seminar Course for Graduate Program

Ki-Suk Lee
Jae Kie Hwang
Byong Sul Lee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basic instruction and materials for graduate field work within a limited time frame.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aims to heighten the observation ability and field techniques of students for future regional survey. Therefore, the nature of the program in the given selected field courses is intended to be oriented much more toward teaching and conducting seminars rather than research.

For a detailed field course, the study has developed five different areas to be completed within a one day time period. Five areas are all related to the surrounding areas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except for course numbers 4 and 5 which extend to neighbor provinces. Each course is closely related to the graduate course work and has the potential of developing student's own thesis proposal area in near future. All field courses included in this program have been developed by intensive field exercises during the last two years.

The program itself provides an instructive and constructive way in which professors and students could be deeply involved in inquiry of area study. At the same time the program could be expanded according to participant's economic condition and time schedule at any time.